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신년사

한태락 중앙종친회장

화합·발전의 길, 우리 함께 나갑시다!

존경하는 청주한문 100만 종원 여러분! 푸른 용의 해,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비상으로 힘과 용맹,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내외 100만 청주한문 모두가 건강하고 만사형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강대국 간의 무역 분쟁과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뿐 아니라 경기 침체와 3고 현상의 지속에 이념적인 갈등 등 국내여건 또한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용솨솨 치는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나라와 가정에 행운이 상승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청주한씨중앙종친회도 갑진년 올 한해에는 송조돈목을 값진 덕목으로 실천화하는 가운데 청주한문이 하나되는 대화합의 기틀을 다져 삼한갑족 명문성씨의 위상을 더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일가 분들과 함께 종사 운영에 최선의 노력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조부군의 송조 선양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시조부군의 탄생지이며 우리 청주한문의 성지인 청학각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울러 시조부군의 생애 활동 흔적과 유적 등을 발굴하고 벨트화하여 일반인은 물론 우리 청주한문 후손들이 즐겨 찾고 탐방하는 관광 명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소재 조선 8대 명당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시조 묘역을 비롯해 인근의 유적과 시설물 또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며 시조부군을 위시하여 선조님들의 세향 및 제례 봉행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학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청주한문의 후예들이 국가의 동량이고 나아가 청주한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의 대폭 확충과 장학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청주한문의 인재양성에 더 많은 값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익산 쌍릉 수호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 석왕동 소재 사적 제87호인 익산 쌍릉의 대왕릉은 우리 청주한씨의 원류인 마한태조무강왕릉이라는 무수한 역사적 문헌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선조 대대로 청주한문에서 매년 음력 3월 보름날 익산 쌍릉에서 제례를 봉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에도 익산시 당국에서 쌍릉의 대왕릉을 백제 무왕릉으로, 소왕릉을 선화공주의릉이라는 역사기록과도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중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무강왕수호범대책위원회 중심의 체계적인 활동과 부단한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익산시 당국과 우리 문중 간에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으로 우리 청주한문 모두는 단합된 의지로 쌍릉수호에 빈틈없는 수단과 방법 등 수호대책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송조돈목과 대화합의 기틀을 더욱 다지는 청주한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종친회의 원로, 어르신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존경심, 그리고 종친 간의 친목과 화합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상대를 불신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이기심에서 기인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를 하나로 엮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주한문은 한 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문 모두는 하나가 되고 명문가문의 일원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동기부여로 청주한문의 뿌리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청주한문의 대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중앙종친회가 구

심체 역할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터넷 한글대동족보의 지속적인 구축사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종친회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친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소중한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종사에 반영하고 나아가 한문일가 분들의 아름다운 미담이나 동정, 그리고 문중의 각종행사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의 홈페이지로 활

성화 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문일가님 여러분!
2024 갑진년 푸른 용의 해는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청룡은 푸른색(甲)과 용(辰)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힘찬 도전과 강한 전진으로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한문의 화합과 번영의 길, 우리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청주한씨중앙종친회장 한 태 락

중앙종친회, 2024 신년교례회 개최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회장의 건배 제의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1월 25일 갑수 명예회장, 상대 고문, 태락 회장을 비롯 고문, 회장단 및 임원과 종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신춘소재 k-Turtle(구. 거구장)에서 2024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태락회장은 많이 참석해주신 임원 및 일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후 신년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설계한다. 저는 청주한문이 하나로 화합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다. 일가 분들과 저의 소망이 원만이 이루어지는 갑진년이 되기를 바란다. 청주한문은 시조부군을 위시하여 천여 년을 이어오는 동안 국가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 기여한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한문의 명예와 위

상을 빛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송조돈목하고 종사기반을 다지며 장학사업도 활성화하여 후손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고 유적 수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이다. 오늘 행사가 화합을 더욱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갑수 명예회장과 상대 고문은 갑진년을 맞아 각 가정마다 큰 복을 누리시고 나아가 청주한문 전체의 명예와 위상을 더욱 높여 타 성씨문중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중앙회도 금년도에 훌륭한 집행부가 구성되서 종사가 원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뒷받침하자고 독려한 후 종사운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태락회장께 큰 박수를 보내자고 격려하였다. <2면으로 계속>

2023년 癸卯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봉행

전국 각지에서 800여명의 후손 참사

초헌관 三郎 중앙수석부회장
아헌관 甲洙 대전종친회장
종헌관 然九 절제공파회장



태락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종친회(회장 台洛)는 지난 11월 13일 (음력 10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 묘역(충북기념물 제72호)에서 800여 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계묘년 시조부군의 세향 제례를 경건하고 원만하게 봉행하였다. 시조부군 세향은 청주한문의 아름다운 가업이자 시조부군의 음덕을 기리는 송조·화합돈목의 장으로 매년 1,500여명에 달하는 일가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봉행을 하고 있지만 계묘년에는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하여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많은 일가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냈다.

초헌관에는 삼랑(三郎)중앙회수석부회장, 아헌관에는 갑수(甲洙)대전종친회장, 종헌관에는 연구(然九)절제공파회장, 축관은 관우(官愚)판관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종호(鍾顛)제전부회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별항)

태락 중앙회장은 세향봉행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오

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경향 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사해주신 일가분들을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 한 해의 땀과 노력으로 풍요로운 수확의 결실로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오늘은 음력 상달 10월 초하루 날로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큰 공을 세워 문화태위에 오르시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신 시조 위양공부군의 세향을 봉행하는 뜻 깊은 날이다. 우리 청주한문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이자 명문거족이다. 시조 위양공부군께서는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다. 시조께서 탄생하신 난곡리에는 청한각과 강론터가 있고 주된 활동을 하신 청주에는 무농정, 방정, 제단비 등 문화유적과 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공부하는 일은 후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곳 시조부군의 묘소는 전국 8대 명당 중 으뜸인 곳으로 훌륭한 후손들을 배출한 길지 중의 길지이다. 조선조에 수많은 상신과 공신, 대제학을 비롯해 수백의 문과급제자 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고 6분의 왕비와 부마 등 왕조와도 친인척의 연을 맺었다. 정부수립 이후 역사에 유례가 없는 3연속 국무총리를 배출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덕수총리가 두 번에 걸쳐 요직을 맡아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있으며 부총리, 장차관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로 이바지하며 청주한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화합돈목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 뒷받침 하는 것이 후손의 책임이자 종사과업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인 제한이 많았지만 연초부터 해제가 되었다.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전국의 남녀노소 많은 일가분들과 함께 세향에 참석하고 송조돈종의식을 함양하는 대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금년 한 해



시조부군의 세향을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좌로부터 삼랑(초헌관), 갑수(아헌관), 연구(종헌관)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한 후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여 지금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지는 신묘

(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 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속리산맥을 타고 내려와 황간 땅에 이르러 우뚝 솟은 지장영봉(芝庄靈峰)은 사위(四圍)를 거느리고 멀리 백리에 뻗쳐 영기(靈氣)가 모였으니 이곳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理)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시조부군의 묘는 배위 송(宋)씨와 합조(合兆)이다. 가산(駕山) 남쪽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며 속리산이 갑방(甲方)인고로 이르기를 회룡고조(回龍顧祖)라 하여 길지라한다. 중간에 실호되어 후손들이 단을 쌓고 비를 세워 세일제를 받들기도 하였다. 잘못된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자손이 있으면 반드시 조상을 찾게 마련이다. 숙종 14년(1688) 묘하에 고용되던 한모(韓某)가 탐문한 바 그 동네에 사는 모(某)인이 공의 산소를 파헤치고 묘갈을 동강내어 우물바닥에 묻고 산소 전 후면에 투장하였다는 정보를 후손 성헌(聖憲)에게 고하니 성헌이 다시 청주병사 근(根)에게 제보하여 조사한바 중절된 비(碑)의 자획(字劃)이 완전함에 공모임을 확인하고 이듬 해 후손 성우(聖佑), 형(溟), 숙(塾) 등이 제소하여 확인을 얻고 광중(曠中)을 열어보니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다시 묻고 개봉축하여 표석(表石)도 세웠다.

묘비는 숙종 30년(1704)에 개수(改鑿)하고 신도비(神道碑)는 영조 44년(1768)에 세웠다.

<1면에 이어>

광전 민주평통 여주지부 상임위원 임명, 일가분들께 감사

국민의례 후 상호 신년인사 교례, 주요 임원소개, 회장인사, 내빈 격려사, 케익 커팅과 건배사에 이어 오찬 및 친교의 시간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

게 진행된 신년교례회 행사의 식대를 광전 (전)경기도회장이 부담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광전 (전)회장은 지난해 민주평통 여주지부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는바 일가분들의 성원의 덕이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사하였다.

4위 선조 계묘년 세향 봉행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4위(2세·3세·4세·5세)선조의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음 10월 1일, 월) 시조부군 세향 봉행에 이어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2세, 3세, 4세, 5세 선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계묘년 세향이 상열(相烈) 중앙회제전부장의 집례로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 용호군 교위공 휘 영(龍虎軍 校尉 公 諱 穎), 3세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

시조세향 제관 분방		산신제 제관 분방
• 初獻官 : 三郎 수석부회장	• 司 樽 : 在淑 제전위원	• 獻 官 : 斗煥 중앙부회장
• 亞獻官 : 甲洙 대전시회장	• 左 奠 : 義傳 제전위원	• 祝 官 : 高錫 청성군파
• 終獻官 : 然九 절제공파회장	• 右 奠 : 甲傳 제전위원	• 執 事 : 安東 청성군파
• 執 禮 : 중호 제전부회장	• 左 奉 : 明燮 제전위원	
• 大 祝 : 官愚 판관공파회장	• 右 奉 : 允洙 제전위원	
• 謁 者 : 相烈 제전부장	• 執 事 : 忠煥 중앙부회장	
• 陳 設 : 斗煥 중앙부회장		

	4위단 제관 분방			
	2세 校尉公	3세 同正公	4세 直長公	5세 上將軍公
• 初獻官	章堯 충북도회장	一鎬 참판공회장	根峻 충지공파회장	懿九 무강왕수호위원장
• 亞獻官	格東 충남도회장	國先 대구경북회장	承南 중앙회감사	基祚 구미시회장
• 終獻官	文熙 충청공파	仁洙 인양공파	泰龍 한영회회장	成準 문양공파
• 執 禮	相烈 제전부장	이하 상동		

사무처

- 접수·도기 : 康燮(참판공파) 正錫(문정공파) 鉉洙(참판공파) 성구(이랑공파)
- 앰프관리 : 成益(문정공파회장) • 예복관리 : 順子(부녀부장)
- 안내·질서 : 청장년회원 및 청주지역 회원

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 세향

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1985년 4위 추모설단을 시조묘역 내에 모시기 전까지는 전남 영광에 모신 6세조 예빈경공(禮賓卿公·諱 光胤)의 추원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세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려왔었다.

제전위원 및 전국 청장년 일가 등 20여 명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8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사한 2023년도 계묘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 세향이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음에는 사전 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과 행사후 정리정돈을 도운 20여명의 제전위원 및 서울, 경기, 청주 등 각 지역과 종파문중의

일가들과 일부 임원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있었다.

자원봉사 일가

중호, 일용, 근준, 상렬, 시근, 성익, 두환, 윤수, 관우, 태수, 창수, 대석, 강섭, 갑전, 의전, 도영, 현수, 명섭, 성구, 노동, 복연, 순자, 금순 (무순·직함생략)

집행부 임원 및 제전위원

시조묘역 벌초 및 정리 봉사

중앙종친회 태락회장을 비롯 근준, 일용, 중호, 성익, 상렬, 윤수, 의전, 정수, 영우, 기학, 두환, 격동회장 등 집행부 임원 및 제전위원과 봉사 일가분들은 지난 해 추석과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앞두고 차량과 장비를 지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시조 및 4위단 묘역 벌초 정리 후

일정으로 시조묘역 및 4위 선조 설단 앞 벌초와 세일재 경내와 주변의 정리 정돈 작업 등의 봉사활동 수행으로 일가분들로 부터 많은 격려를 받

시조세향에 110명, 2,628만원 헌성

삼랑부회장 300만원, 태락회장 200만원

갑수명예회장·연구·장훈회장 각 100만원

지난 11월 13일에 봉행된 시조 세향에 참사인원이 예년에 비해 적었음에도 삼랑부회장 300만원, 태락중앙회장 200만원, 갑수명예회장 100만원, 연구절제공파회장 100만원, 장

훈충북도회장 100만원 등 110명의 일가들이 2,628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성한 일가분들 내역 별항)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청주한문 종현분들께서 물심양면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관심과 성원의 덕으로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계묘년 세향을 성황리에 봉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종사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내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 태 락 배상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장순왕후 563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1월 14일 일요일, 파주 공릉에서



공릉(장순왕후 능) 전경

예종대왕비(睿宗大王妃) 청주한씨 장순왕후(章順王后, 1445년 2월 22일(음력 1월 16일)~1462년 1월 5일(1461년 음력 12월 5일)의 제563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월 14일(일)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공릉(恭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공릉봉향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으며 충성공과문중의 도영일가가 아헌관으로 봉무하였다.

예종(睿宗)의 정비인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 충성공(上黨府院君 忠成公 諱 明澮)과 황려부부인 민씨(黃驪府夫人 閔氏)의 셋째 딸로, 16세 때인 1460

년 세자빈(世子嬪)으로 간택되어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가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며 정숙한 성품에 아름다운 용모로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음력 11월 30일, 왕실의 적통인 원순(인성대군)을 낳았으나 같은 해 음력 12월 5일 녹사(錄事) 안기(安耆)의 집에서 산후병으로 향년 17세로 요절했다.

시호는 휘인소덕장순왕후(徽仁昭德 章順王后)이며 장순은 온순하며 너그럽고 아름다우며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을 담고 있다.

능호 공릉(恭陵)은 능 아래쪽의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길인 참도가 ㄱ자로 꺾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도는 원래 직선으로 만들지만 자연 지형에 어울리게 조영한 것이며, 조선 왕릉 중 참도가 꺾인 곳은 공릉, 정릉 그리고 다소 조성 내역이 다른 단종의 장릉 등이다. 한편, 파주삼릉(공·순·영릉)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순릉에는 장순왕후 자매 공혜왕후(恭惠王后, 성종의 원妃)가 모셔져 있다.

안순왕후 526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1월 9일 화요일, 서오릉 창릉에서



창릉(안순왕후 능) 전경

예종대왕 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 1445년 4월 18일(음력 3월 12일) ~ 1499년 2월 3일(1498년 음력 12월 23일)의 526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월 9일(화)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창릉(昌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창릉봉향회 주관으로 양해공과문중에서 참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는 청천부원군 양해공 한백륜(淸川府院君 襄惠公 韓伯倫)과 서하부부인 임씨(西河府夫人 任氏)의 딸로, 왕세자 시절 예종의 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가 1461년에

요절하자, 1462년 세자빈에 간택되었고 1468년 예종이 즉위하면서 왕비에 책봉되었다.

1469년 예종이 보위에 오른 지 13개월 만에 흥서하자 원자(元子)인 제안대군의 보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산군(堧山君: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인혜대왕비(仁惠大王妃)로 존호를 받았다. 소생으로는 효성이 지극한 제안대군(齊安大君)과 현숙공주(顯肅公主)가 있었으며, 1498년 음력 12월 23일 경복궁에서 승하하여 창릉에 안장되었다.

시호는 인혜명懿昭徽齊淑安順王后(仁惠明懿昭徽齊淑安順王后)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창릉(사적 198호)은 서오릉에 조성된 최초의 왕릉으로 왕릉과 왕비릉은 동원이강식(同原異岡式)을 이루고 있으며, 석물(石物)의 배치는『국조오례의』의 예에 따랐다. 고석(鼓石)의 문양과 석난간(石欄干), 대석주(大石柱)의 주두양식(柱頭樣式)이 특이하다.

문정공(휘 계희) 600주년 탄신제 봉행

울동공원 내 문정공부군 묘전에서



문정공 탄신제 봉행

지난 2023년 11월 10일(음 9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성남시 울동공원 내 문정공 선영 묘전에서 문정공 탄신 600주년 탄신제 봉행 및 문정공 평전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탄신제에는 각지에서 120여명의 일가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익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태락중앙회장의 축사, 그리고 출판도서 '문정공 한계희' 봉정 예식이 거행되었다.

종호중앙회 제전부회장의 집례로 봉행된 탄신축하 제례는 초헌관에 성익문정공과중회장, 아헌관에 태락중앙종친회장, 종헌관에 춘섭출판위원장, 축관에 재철중중감

사, 집사자는 각 지파 회장단이 맡아 제례를 봉행하였으며, 탄신 축하연에는 각 지파회장단의 송축시 낭독 및 정미에 명성태황후 추모예술회 위원장의 시창낭독으로 저리를 빛내주었다.

3부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서는 외부인사 및 임원단 소개에 이어 평전 출판 보고 및 출판에 수고하신 춘섭출판위원장 및 출판위원(동역, 동훈, 동춘, 관우, 병철, 경우, 상현)분들과 재철감사, 택영총무이사께 공로패를, 희성 현대기획대표께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참석한 모든 분들께 문정공 '한계희 평전' 및 불펜셋트를 선물로 지급하였다.

(문정공파 회장 성익)

문숙공(諱 翼翬) 묘소 이장 및 시제 봉행



지난 11월 12일 화성시 반월면 월암리에 소재한 문숙공(文肅公 휘 익모) 묘소를 의왕시가 새로이 조성한 역사공원(의왕시 방죽말길 12-5)으로 이장하고 11월 19일 충정공과 춘희회장, 장도공과 만교회장 등 많은 후손들이

참사한 가운데 시제를 봉행하였다. 문숙공(1703~1781, 공안공파 25세)부군은 조선 후기 예조판서,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영조 신해(辛亥)에 문과 장원급제, 참판 9번, 판서 6번을 역임하였다. (충정공파 춘희회장)

충성공(諱 明澮) 묘역,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충성공부군 묘역 전경.

천안시 수신면 소재 충성공 부군 묘역 일원이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난 1월 3일 충성공과 선교 회장과 일가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으로부터 문화재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금번 지정 문화재는 무덤 2기, 묘표 2기, 무인석 4기, 장명등 1기, 신도비 1기가 지정되어 충성공 부군의 공적과 업적을 후대에 길이 높이고 묘역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게 되었다. 묘역은 조선 전기 한명회 선조와 부

인 여흥 민씨 묘소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석조물의 축조 방법과 조각 수법은 15-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장 형태로 묘역을 감싸 축조한 석축, 무인상을 2구씩 쌍으로 배치한 방식, 신도비의 우수한 조각 수법이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충성공 부군은 1415년 탄생하시어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오르고, 1457년 이조 판서에 올라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졌고, 이어 병조 판서가 되었다. 1459년 황해·평안·함경·강원 4도의 체찰사(體察使)를 지낸 후에 1461년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고, 이듬해 우의정에 이어 1463년 좌의정을 거쳐 1466년 영의정을 역임하는 등 4차의 일등공신에 이르렀다. 두 분의 따남은 예종, 성종의 왕비가 되었다.

충성공 부군은 신숙주 등과 편찬에

착수했던 신제대전(新制大典)의 초안과 세조실록을 완성하는 등 조선 초기 문화 발전에도 많은 공을 세우고 1487년 향년 72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선교회장은 1년 6개월여 간 충남도와 천안시를 방문하여 충성공 부군에 대한 공적과 업적을 수차례 설명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정서를 전달하며 “한명회 선생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축하를 보내주었으며, 선교 회장은 “종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유업을 후대에 계승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하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였다.

(충성공파중흥회 대길)



충장공 한백록장군 묘에 경례하는 '춘천함' 승조원.

중앙회장 및 집행부임원 춘천지역 유적 탐방



한백록 장군 묘역(좌) 및 한동훈위원장 가족묘 참배(우).



한편 지난 1월 20일 중앙종친회 대락회장은 근준부회장, 상렬, 순자부장 등 집행부 임원과 함께 춘천을 방문해 명수회장, 희민회장 및 일가분들의 안

내로 충장공 한백록 장군묘역과 한동훈위원장의 조부 및 선친의 가족묘소를 탐방하고 참배하였다.

충장공 한백록장군 서거 431주기 헌다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 휘하 장수로 싸우다 전사

충장공 한백록장군(1555~1592년, 몽계공과 19世)의 서거 431주기 헌다례가 지난 9월 1일 춘천시 서면 금산리 충장공 한백록장군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헌다례에는 대한민국해군 '춘천함'의 천민기 함장을 비롯한 승조원 40여명이 참석해 한백록장군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예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백록 장군은 선조 13년(1580) 25세로 알성무과에 급제하여 진잠현감(鎭岑縣監)에 배명받고 농업과 잡업을 권장하며 병기(兵器)를 수리보완하여 사졸(士卒) 훈련에 힘쓰던 중 지세포(知世浦) 만호에 제수되어 남쪽 요새지를 맡아 튼튼히 방어하던 차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해 부산, 옥포, 당포 등 해전에서 연전연승한 것을 참작

하여 전사한 정발(鄭撥)장군의 후임으로 부산첨사(釜山僉使)에 특별 제수되었다. 이후 전쟁이 더욱 치열하여 선조 25년(1592) 7월 남해군 미조항 전투에서 38세의 아까운 나이에 전사하였다.

선조 38년(1605)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인조 6년(1628)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영조 27년(1751)에 정려(旌閭)가 내려지고 순조 8년(1808)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증작되었으며 순조 11년(1811) 시호로 충장(忠壯)을 하사받았다.

한백록 장군은 춘천지역에서 충신으로 유일하게 정려(旌閭)를 받은 위인으로 묘역과 정려각(旌閭閣)은 강원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관희·재운일가, 종묘 추향대제 제관 봉무



지난 11월 4일(토) 문화재청과 종묘 제례보존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종묘 추향대제에 관희 충의공과 이사(사진 좌측 원내)가 영녕전의 8실 덕종대왕실과 9실 예종대왕실의 아헌관으로 참여하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추향대제는 5월 춘향대제와는 달리



넌리 알리지 않고 조선시대 나라의 제사라는 순수성에 초점을 맞춰 보다 경건하게 본래의 의미에 더 충실하게 봉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종묘에서 봉행되며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2001년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운영회비(10~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동희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000
상길 부회장(참의공파회장)	1,000,000
상길 부회장(총정공파회장)	1,000,000
선교 부회장(총성공파회장)	1,000,000
영호 부회장(안양공파회장)	1,000,000
재국 부회장(판사공파회장)	1,000,000
격동 부회장(충남도회장)	500,000
국선 부회장(대구경북회장)	500,000
명수 부회장(강원도 회장)	500,000
상원 부회장(광주시회장)	500,000
흥렬 부회장(인천시회장)	500,000
재철 겸임이사(경기 고양시)	400,000
상량 자문위원(충남 서산시)	200,000
성교 자문위원(대구 북구)	200,000
일수 자문위원(울산 북구)	200,000
철호 자문위원(전남 영광군)	200,000
준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0
준희 자문위원(경기 수원시)	200,000
태고 자문위원(서울 노원구)	200,000
현구 자문위원(서울 서초구)	200,000
경남 겸임이사(대전 동구)	200,000
권우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200,000
기선 겸임이사(서울 성동구)	200,000
기화 겸임이사(경기 화성시)	200,000
동엽 겸임이사(광주 북구)	200,000
만길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봉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200,000
상돈 겸임이사(광주시회장)	200,000
상식 겸임이사(경북 경산시)	200,000
상우 겸임이사(고창군회장)	20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시)	200,000
선구 겸임이사(서울 금천구)	200,000
용석 겸임이사(전남 영광군)	200,000
인숙 겸임이사(경기 양주시)	200,000
일식 겸임이사(대구 남구)	200,000
영오 겸임이사(광주 서구)	200,000
광욱 고문(서울 강남구)	100,000
종남 겸임이사(광주 서구)	100,000
종남 겸임이사(광주 서구)	10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군)	100,000
건석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교회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100,000
구현 운영위원(경남 진주시)	100,000
기송 운영위원(충남 서산시)	100,000
길우 운영위원(충남 서산시)	100,000
동석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만중 운영위원(경기 성남시)	100,000
만홍 운영위원(서울 송파구)	100,000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100,000
상기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상철 운영위원(광주 서구)	100,000
상현 운영위원(광주 광산구)	100,000
성규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연섭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익희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100,000
재관 운영위원(광주 북구)	100,000
종연 운영위원(광주 남구)	100,000
합계	15,900,000

일반찬조헌성금(10~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락 중앙회장	300,000
유광 부회장(찬성공파회장)	300,000
진수 부회장(검찰공파회장)	200,000
심량 부회장(수석부회장)	1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100,000
서울시총친회(상락)	100,000
갑전 (청장년회장)	100,000
대석 (부산)	100,000
합계	1,300,000

개인증보비(10~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정호(서울 강동구)	20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100,000
기덕(경기 수원시)	100,000

만진	100,000
문수(충남 서천군)	100,000
문희(서울 강동구)	100,000
춘희 자문위원(경기 수원시)	1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고앞회장)	50,000
기창(태릉)	50,000
동순(전남 해남군)	50,000
두환 부회장(이랑공파회장)	50,000
명철(서울 성동구)	50,000
상년(전남 광양시)	50,000
상목(경남 고성군)	50,000
상옥 겸임이사(고창군회장)	50,000
성수(서울 광진구)	50,000
옥동(서울 영등포구)	50,000
조정(서울 마포구)	50,000
춘부(서울 중구)	50,000
희수(서울 동작구)	40,000
대삼(제주 제주시)	30,000
덕수(경기 평택시)	30,000
상봉(서울 종로구)	30,000
상철(경기 성남시)	30,000
영석(경남 합천군)	30,000
영태	30,000
영태(경기 용인시)	30,000
영태(경기 용인시)	30,000
용규(경북 영천시)	30,000
진택(경기 의정부시)	30,000
경희(경기 의정부시)	20,000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동명 겸임이사(서울 영등포구)	20,000
면희(서울 서초구)	2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군)	20,000
준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
합계	1,860,000

단체증보비(10~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삼재관리위원회	500,000
공주시총친회(상돈)	200,000
광주광역시총친회	200,000
강북도봉총친회	100,000
참의공파총중	80,000
합계	1,080,000

시조세향헌성금 단위:원	
이름	금액
심량(수석부회장)	3,000,000
태락(중앙회장)	2,000,000
갑수(명예회장)	1,000,000
연구(절제공파회장)	1,000,000
충북도총친회(장훈)	1,000,000
기인(경남향교재단이사장)	500,000
무강왕릉수호반대책위(의규)	500,000
삼재관리위원회(동희)	500,000
찬성공파총중(유광)	500,000
청한산악회	500,000
경기도총친회	300,000
광전(경기도총친회장)	300,000
광주광역시총친회(상원)	300,000
대구경북총친회	300,000
문정공파총중(성익)	300,000
부산총친회(동경)	300,000
서원군파총중(길수)	300,000
안산총중(승은)	300,000
양해공파총중(도수)	300,000
울산총친회	300,000
장도공파총중(만교)	300,000
절제공파승의랑총중(윤규)	300,000
질경공파총중(상우)	300,000
참판공파총중(일용)	300,000
화성시서신면총중	300,000
회양공파총중	300,000
강북도봉총친회	200,000
강원원주총친회(택용)	200,000
검교참판공파총중(진수)	200,000
경남총친회(만준)	200,000
국선(대구경북회장)	200,000
노림의상총중(문희)	200,000
달성중앙회(갑사)	200,000
대전총친회(갑수)	200,000

문간공파총중회 정기총회 개최

결산 및 예산(안), 정관 개정 등 결의



문간공파총중회 정기총회

문간공파총중회(회장 석구)는 지난 1월 19일 중앙회 회장 및 석구회장 등 총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영등포소재 육해공식당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이어 정관개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석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종사운영 및 발전을 위해 임원 및 일가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참여하고 화합해줄 것을 독려했으며, 태락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문에서 가장 큰 문중인 문간공파총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중앙총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간공파총중회 정석총무)

문간공파총중(석구)	200,000	서울광진성동총친회(수창)	100,000
문양공파총중(석희)	200,000	서울청장년회(갑전)	100,000
백학면 진사공파총중(상준)	200,000	세계씨씨연맹한씨부일동	100,000
부산영도총친회	200,000	순재(부녀부장)	100,000
상영(판서공파총중)	200,000	승지공파총중(득수)	100,000
서울시총친회(상락)	200,000	안양공파총중(병량)	100,000
영덕군총친회(창균)	200,000	여명공파총중(천동)	100,000
인천총친회(홍열)	200,000	연기현감총중(운섭)	100,000
장현공파총중	200,000	우석(영광 참의공파)	100,000
전남창성군총친회(인석)	200,000	월포공파총중(영동)	100,000
전북총친회(영교)	200,000	윤동(평간공파총친회장)	100,000
제주도총친회(만수)	200,000	이조정랑공파총중(두환)	100,000
참의공(회총지)총중(근준)	200,000	인수(안양공파)	100,000
첨성공파총중(윤수)	200,000	정당공개일총중	100,000
청성공파총중(원삼)	200,000	중호(제천부회장)	100,000
청주한씨청장년일동	200,000	참의공파나주총중(상용)	100,000
충남총친회(격동)	200,000	충남논산총중(광석)	100,000
충성공파총중(선교)	200,000	충주총친회	100,000
총의공파총중(찬규)	200,000	태호(인천)	100,000
태용(한영회 회장)	200,000	판사공파사직공파총중(경)	100,000
평간공파총친회(윤동)	200,000	판사공파총중(재국)	100,000
평해공파수원총중	200,000	평택봉사공파총중	100,000
헌남공(휘)총중	200,000	현령공파총중(기동)	100,000
강원총친회(명수)	100,000	동훈(정은)	50,000
강화군총친회(영선)	100,000	명수(대구 달서구)	50,000
검찰공파사직시정공파(기화)	100,000	삼녕(관악구총친회)	50,000
검찰공파사직시정공파총중	100,000	상문(충남 부여)	50,000
공간공파총중(동춘)	100,000	성교(대구 북구)	50,000
관우(부산 해운대구)	100,000	아산시총친회	50,000
구미시총친회	100,000	영남(강서구 참의공)	50,000
근수(청양 참의공파)	100,000	점두(전북 완주군)	50,000
대석(부산 양정공파)	100,000	창근(공안공파)	50,000
대석(청장년부회장)	100,000	만중(판관공파)	30,000
마포구총친회	100,000	충성공파총중(선교)	소곡주
만철(삼괴총친회)	100,000	합계	26,280,000
목사공정부파총중(홍수)	100,000		
문열공파총중	100,000		
미경(문양공파)	100,000		
반월대일총중(동후)	100,000		
삼괴총친회	100,000		
상길(청주시상당구)	100,000		
상분(평해공파)	100,000		
서울관악구총친회	100,000		

장학기금 납부내역(10~12월) 단위:원			
교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151	규백(경기 김포시)	200,000	2,630,000
2246	박혜수(주소불명)	120,000	120,000
합계		320,000	

원로·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종사 발전방안 등 논의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11시 갑수 명예회장, 화갑 고문, 선교, 길수, 동경 회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원로·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종사 발전방안과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년도 주요 경과 및 종사운영에 관한 보고에 이어 현행 종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당면 중점 추진과제 선

정 등 향후 중앙회 운영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종친회 조직 활성화 방안, 중앙회장 선임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유적 수호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태락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갑수 명예회장님과 화갑 고문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원로



연석회의에서 태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및 회장단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원로 및 회장단 분들의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청주한문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고 종사발전과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갑수 명예회장과 화갑 고문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중앙종친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랑스러운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를 더욱 높이고 빛내 나가자고 격려했다.

장학회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11월 27일 태락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와 장학후원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의와 장학재단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3년도 주요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지난 1년간 출연 받은 장학기금 중 5,7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기본재산을 37억 4,700만원으로 증자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가결하였으

며, 임원 개선을 통해 명수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근우, 갑수, 춘희, 진수 이사와 길수 감사의 연임을 의결하였다.

태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훌륭한 후원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의 기금확충 등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과실소득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수익사업 실현방안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고 임원분



제2차 장학회 이사회.

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임원분들 또한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청주한문을 대표하는 장학재단으로 우뚝 세우고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성원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 장학기금 출연 및 기부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금주 (재)청주한씨장학회



서원군파종중회 임시총회.

서원군파종중회 임시총회 개최

서원사 세향일 변경 등 결의

서원군파종중회(회장 길수)는 지난 11월 28일 11시 종로3가 소재 한일옥에서 길수회장, 갑수명예회장, 태락중앙회장 등 종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서원사 부지의 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 방안과 규약 개정 등에 이어 서원사 세향일을

양력 4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하는 의안을 가결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한 후 우리 청주한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거족이다. 고려와 조선의 왕들은 왕후인 우리 한씨의 거룩한 피가 연면히 흘러내려왔고 현 정부에서도 우리 한씨는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 만

나는 사람마다 淸州韓門의 위대함을 입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陽이 있으면 陰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명문거족의 후예답게 행동거지를 잘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 우리의 행동거지가 명문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비방은 우리 선조들에게 두 배로 돌아간다. 바르고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말도 하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선대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언행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고 당부하였다.

갑수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한문의 자랑인 덕수총리가 지금 훌륭하게 잘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유능한 후예가 있는데 이분도 일이 잘 풀려 우리 한문의 앞날을 빛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이런 인재의 등을 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서원군과 회장을 맡아서 잘 이끌고 있는 길수회장께 앞으로 더 잘해달라고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태락회장은 평소 존경하는 갑수장관님, 길수회장님을 비롯해 종원

분들을 뵈게되어 반갑다. 2023년도 어느덧 11월의 하순이다. 금년에 계획 하였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서원군파종중회도 좋은 결실과 보다 더 화합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하는 문중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청주 한문은 오랜 역사에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한 훌륭한 선조님들이 무수히 많은 삼한갑족의 명문거족이다. 근래에 와서도 3명의 국무총리는 물론 장 차관, 정 재계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조이신 위양공께서는 고려개국의 일등공신이라면 서원군께서는 고려조에서 활약한 구국영웅으로 추앙받는 우리 청주 한문의 위상을 크게 빛내신 분이다. 이러한 훌륭한 선조님이 있었기에 우리 후손들은 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에 우리 후손들은 선조님들의 빛나는 얼을 이어 받아 청주 한문이 더욱 발전하고 빛나는 명문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격려했다.

(서원군파종중회 길수회장)

한동훈 법무장관,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민후사, 국민이 우선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난 12월 26일 전국위원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선당후사’보다 ‘선민후사’를 실천하고, 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한 한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고 운동권 특권 정치 세력은 청산해야 한다고 밝힌 후 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과 정책으로 여당으로서의 강점을 심분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인 한위원장은 검사 재직 시절 요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2022년 5월 17일

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국무위원이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공동인재영입위원장·여의도연구원 이사장겸직)에 취임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한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약력]

1973년 4월생,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1996

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2005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9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1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년 제69대 법무부장관, 2023. 1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연구원 이사장.공동인재영입위원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발탁

尹대통령의 특급 책사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윤 대통령의 특급 책사로 불리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발탁되었다.

한오섭 정무수석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기획 및 메시지를 작성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핵심 정보를 취합·정리해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윤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없는 이른바 ‘0선’인데, 통상 정무수석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그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6년 서울 출신인 한 수석은 영등포고와 한신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정책실장을 맡아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한오섭 정무수석

2012년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정무특보를 거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역임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젊은 시절 민중민주주의학생투쟁 중앙위원을 지냈으며 노동자투쟁동맹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도피 생활을 한 적도 있다.

[주요 약력]

1966년, 한신대 철학과, 한양대 석·박사, 뉴라이트 전국연합정책실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기도 정무특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2023. 11.~ 대통령실 정무수석

육종가 한치복 회장 ‘국무총리상’ 수상

한평생 육종의 결실, 산림신품종 ‘한초10호’로

한국산초연구회 육종가 한치복회장(양혜공과 34세, 諱名 관진)이 등록된 산림신품종 ‘한초10호’가 지난 11월 15일에 개최된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국내 육성 우수품종을 시상하여 육종가의 신 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 종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대회로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치복 회장은 8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초연구회를 결성해 전국의 산초나무를 수집, 연구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다양한 산초나무 가공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사 이번에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그동안 대통령상 18점, 국무총리상 35점, 장관상 90점이 시상됐지만 상대적으로 보급·시장성 등에 한계가 있는 산림품종의 여건상 개인 육종가의 수상 사례는 지난 2016년 황해속을 육종한 품종인 ‘섬애’의 수상에 이어 한치복 회장이 국무총리상을



국무총리상 수상 기념 한치복 회장(사진 우, 좌측은 3녀은정)

수상함으로써 개인육종가로는 역대 두 번째 수상자가 됐다.

한치복 회장은 “육종가로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한평생 산초나무를 연구하고 품종을 육성해온 노력이 산초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산림청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육종가 개인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산림신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우리 센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산림신품종 육종가 및 임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신품종이 산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